



치트는 시장의 비밀을 알고있다. 치트 분석이 담긴 **정인지** 애널리스트입니다.
 ☎ (02)3770-3585 ✉ inji.jung@tongyang.co.kr



단기 저점 형성 위치의 시사점

Technical Analy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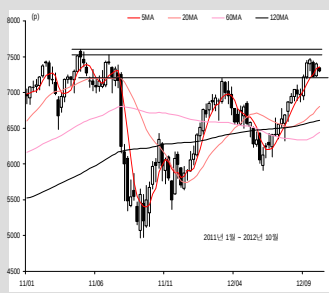
정인지

02-3770-3585

inji.jung@tongyang.co.kr

<http://blog.naver.com/value93>

독일 DAX 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상해 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Why This Report

KOSPI가 9월 14일 갭 상승 후 16 거래일째 횡보하면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하방에 중요한 지지대가 존재해 1,960pt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050pt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한다면 2,000pt 부근까지 반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 저점대 형성 위치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Investment Point

KOSPI 전망

- ▶ KOSPI, 20일 이평선 하향 이탈해 추가 조정 예상되지만 하방에 중요한 지지대 존재해 60일 이평선 위에서 단기 저점 형성 가능
- ▶ 1,960pt 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점대 형성 시 2,050pt 수준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050pt 에서 다시 2,000pt 아래로 급락할 가능성 존재
- ▶ 낙폭을 확대해 60일 이평선까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 예상되지만 2,000pt 를 의미 있게 넘지 못하는 가운데 횡보국면 이어질 가능성 높음
- ▶ 주요 글로벌 증시 역시 중요한 저항대에서 상승탄력 둔화되었지만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기 저점대 형성 위치 주목
- ▶ 따라서 KOSPI 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되 단기 저점대 형성 위치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어떤 경우든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적인 대응 바람직.

• KOSPI, 20일 이동평균선 이탈로 추가 조정 가능성 부각

•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음

KOSPI,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

KOSPI 일봉, 5, 20, 60, 120일 이동평균선, MACD, DMI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가 지난 9월 14일 갭 상승 후 16 거래일째 횡보하는 가운데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 갭 상승 후 형성된 단기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20일 이평선이 상승해서 주가 위로 올라간 모습이다. 어쨌든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이미 MACD에서는 매도 신호 발생 후 MACD선이 낙폭을 확대 중이고, DMI지표에서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DI가 +DI를 상회해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다. 다만 9월 26일 저점대가 1,968pt, 8월 고점대가 1,964pt, 7월 저점과 9월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의 지지대가 1,960pt 부근에 존재해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이들 지지대에서 반동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60일 이평선의 120일 이평선 돌파 후 20일 이평선 이탈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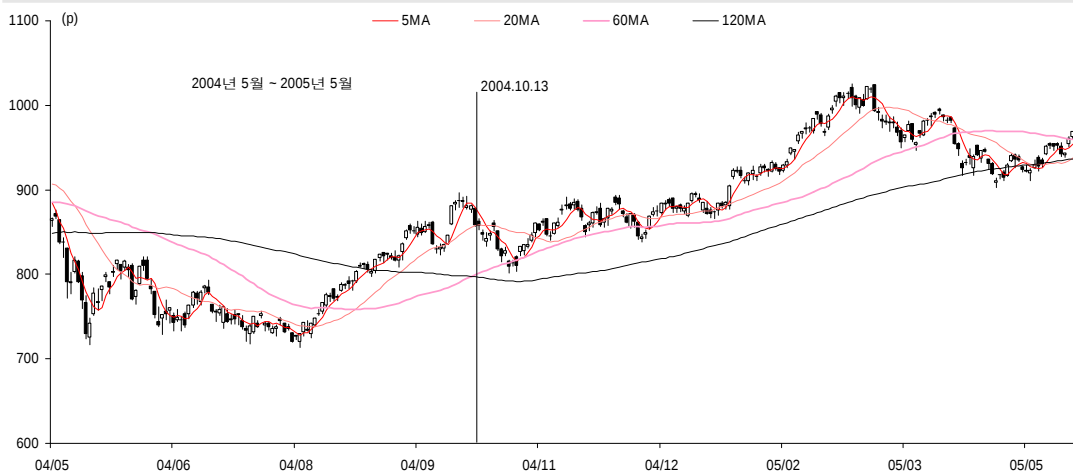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주 본 란을 통해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60일 이평선의 120일 이평선 상향돌파) 후 대체로 중기 횡보국면으로 진행 되는 가운데 점차로 상승 폭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조정 과정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해 60, 1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후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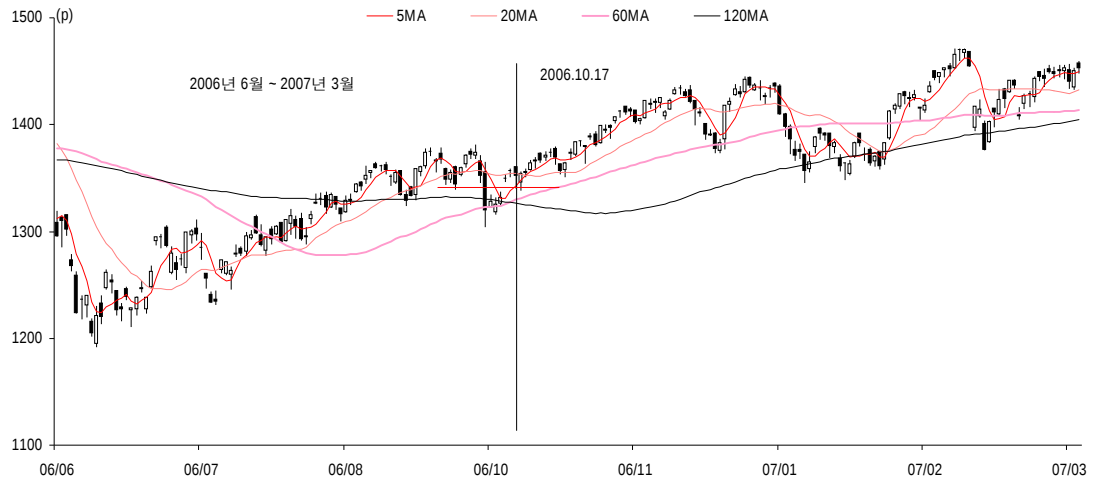
2003년의 사례에서는 20일 이평선 이탈 후 이전 저점대의 지지대에서 상승 폭을 확대했지만 이후 낙폭을 확대해 60일 이평선에 도달했고, 2006년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2004년에는 60일 이평선까지 하락했지만 동 이평선에서 반등해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추세로 전개되었다.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60일 이평선의 120일 이평선 돌파 후 20일 이평선 이탈 시점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60일 이평선의 120일 이평선 돌파 후 20일 이평선 이탈 시점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현재 상황에서 60일 이평선에 도달하지 않고 단기 저점을 형성하면 9월 고점대를 넘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2,000pt를 하회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60일 이평선까지 하락한다면 반대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2,000pt부근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한편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증권업종지수의 경우 8월 고점대의 지지대를 이탈해 추가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고, 단기 저점 형성 위치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중기 횡보 과정이 예상되므로 단기 등락을 이용한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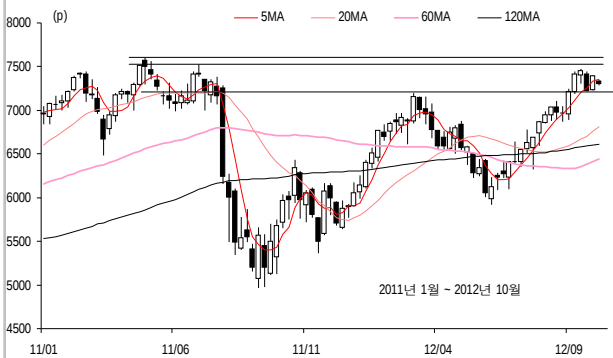
증권업종지수 일봉, 이전 고점대의 지지대 하향 이탈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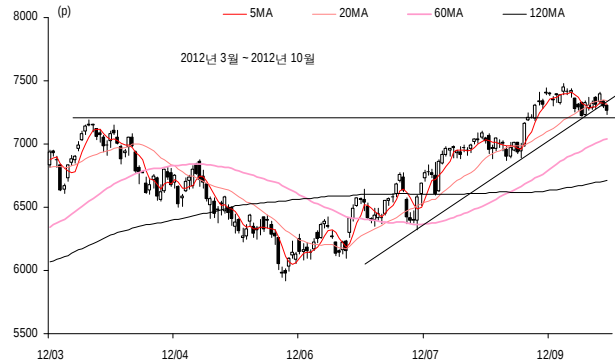
저항대에 도달한 글로벌 증시

독일 DAX 40 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독일 DAX 40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도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이다. 독일 DAX지수의 경우 이미 20일 이평선을 이탈했고, 주봉상으로는 작년 고점대의 저항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 금년 3월 고점이 지지될 수도 있지만 이미 추세선을 이탈해 상승국면 진입에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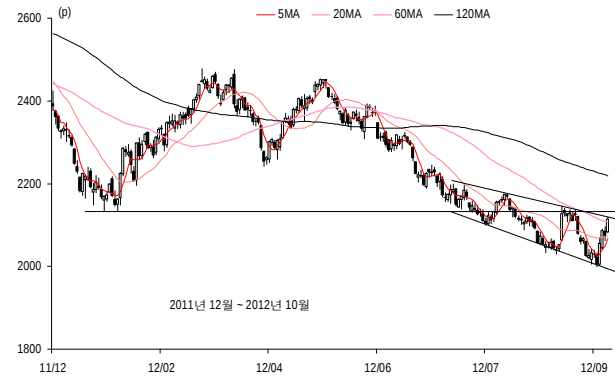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경우 주봉상으로 하락 썰기형 패턴 하단선에서 반등 시도에 나서, 장기 저점대를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 다만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에 도달했고, 아직 60일 이평선이 하락세를 형성하는 등 바닥권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등락 과정을 통해 저점을 확인해야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글로벌 증시 단기적으로 조정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상해종합지수 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상해종합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Reuters,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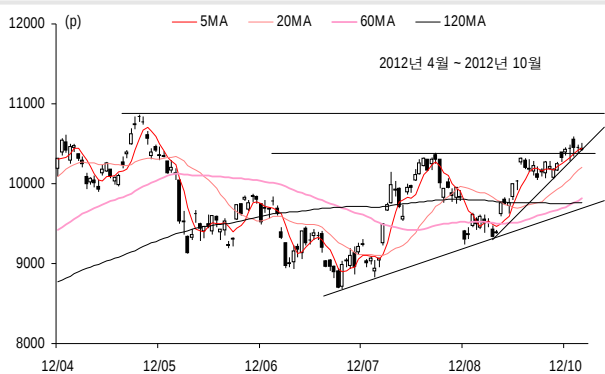
투자전략 : 단기 저점 형성 위치에 따른 전략 필요

KOSPI가 탄력 둔화 과정에서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평선 이탈 시 추가 조정 가능성 높지만 8월 고점대를 비롯해 갭 구간, 추세선 등의 지지대가 존재해 1,960pt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 존재한다.

만약 1,960pt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단기 저점대를 형성하면 9월 고점대를 넘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2,050pt를 넘지 못하고 다시 2,000pt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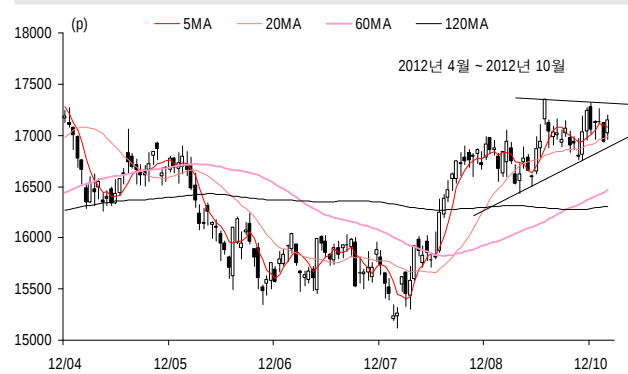
만면 단기 낙폭이 확대되어 60일 이평선에 도달한다면 강한 반동이 예상되지만 2,000pt 수준을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는 주가 흐름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기전자 업종지수 일봉, 이등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보험 업종지수 일봉, 이등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역시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으로 강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기 조정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DAX40지수는 이전 고점대의 저항에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장기 바닥권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등락 과정이 필요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지수가 8월 고점대의 지지대를 하향 이탈해 시장 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이전 고점대 등의 저항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보험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